

<소저영춘전>을 둘러싼 의혹과 향후 논의 방향*

정 준 식**

차 례

- | | |
|----------------------------|----------------------|
| 1. 들머리 | 3. <소저영춘전>에 대한 향후 논의 |
| 2. <소저영춘전>을 둘러싼 몇 가지
의혹 | 방향
4. 마무리 |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소저영춘전>을 둘러싼 몇 가지 의혹들을 정밀하게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이 작품에 대한 새로운 논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소저영춘전>은 여성영웅소설의 외피를 쓰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애정소설의 성향을 농후하게 지니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작품을 특정 작가의 독창적인 창작물이 아닌, <김희경전>의 파생작으로 추정하였다. <소저영춘전>과 <김희경전>의 유사성은 작품의 핵심 구조와 특정 모티프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이러한 유사성이 다른 여성영웅소설에는 나

* 이 논문은 2010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2010AA004)

** 동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타나지 않으므로 두 작품은 직접적인 영향관계에 놓여 있음이 분명하다. <김희경전>은 18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다양한 이본을 낳으며 활발히 읽혀진 반면, <소저영춘전>은 19세기 후반에 필사된 이본이 유일하다. 이를 감안할 때 <소저영춘전>은 독창적인 작품이 아니라 이미 전승되던 <김희경전>의 한 파생작으로 보는 관점이 타당하다. <소저영춘전>은 여성영웅소설을 대표할 수 있는 <김희경전>의 자장을 확인하는데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저영춘전>을 <김희경전>의 수용사라는 거시적인 틀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그동안 간과해왔던 <김희경전>의 소설사적 위상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

주제어 : 소저영춘전, 여성영웅소설, 김희경전 수용사, 개작본, 결연담, 영웅담

1. 들머리

<소저영춘전>은 최근에 소개된 작품으로 총 62면의 분량을 지닌, 한문 병기 국문 필사본이다. 안민정은 이 작품의 말미에 표기된 “신스지월”의 ‘신스(辛巳)’를 1881년으로 추정하면서 작품의 성격과 창작시기를 고찰하였다.¹⁾ 그는 <소저영춘전>을 18~19세기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이소저와 김수재가 혼사장애를 극복하고 혼인으로 결말을 맺는 것으로 보아 애정소설로 분류가 가능”하지만, 이면적으로는 “조력자인 영춘이 존재하고, 그녀는 소저가 장원급제하고 부마의

1) 안민정, 「<새로 발굴한 <소저영춘전>에 대하여」, 『溫知論叢』第18輯, 온지학회, 2008, 185면. 안민정은 자신이 발굴한 자료를 활자체로 옮기면서 띄어쓰기를 하고 원문도 함께 영인하여 실었다(안민정 교수, 『영춘전』,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2009). 본고에서는 이 책에 실린 것을 활용한다.

위치에까지 오를 수 있도록 보필하였으며, 서사 구조상 영춘이 이소저의 비중만큼 차지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여성영웅소설로 분류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가운데 <쇼저영춘전>이 애정소설의 성향을 지녔다는 주장은 별다른 이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워낙 이 작품이 이소저와 김수재의 결연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소저를 보조하는 영춘의 존재를 실제 이상으로 과도하게 부각한 후, 이를 근거로 <쇼저영춘전>의 여성영웅소설성 여부를 판단하려는 태도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

물론, <쇼저영춘전>은 아주 최근에야 발굴된 작품이기 때문에 아직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작품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 의혹이란 대략 <쇼저영춘전>의 갈래 문제와 독창성 여부, 그리고 출현시기로 요약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쇼저영춘전>을 둘러싼 몇 가지 의혹들을 정밀하게 검토하면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향후 이 작품에 대한 논의 방향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2. <쇼저영춘전>을 둘러싼 몇 가지 의혹

2.1. <쇼저영춘전>의 갈래 문제

<쇼저영춘전>은 정체성이 모호한 작품이다. 얼핏 보면 ‘이소저와 김수재의 혼사장에 및 그 극복과정’을 다루고 있기에 애정소설인 듯하지만, 이와는 달리 ‘이소저가 남장한 후 과거에 급제하고 부마로 간택되는 일련의 과정’에 주목하면 여성영웅소설로 보이기도 한다. 안민정은 이에 대해 ‘이야기의 주축인 여성영웅소설의 영웅의 일대기라는 큰 맥락에 남녀의 엇갈림이라는 애정소설의 특징이 가미된 것’²⁾이라 하여, 애정소설의 특징을 지닌 여성영웅소설로 파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쇼저영춘전>을 여성영웅소설로 볼 수 있을까? 물론 이에 대한 해답은 여성영웅소설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주인공이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 부합되는 행적을 보이는 작품이면 이를 영웅소설로 간주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런 관점에서 영웅소설을 남성영웅소설과 여성영웅소설로 나눌 경우, 남성영웅소설은 영웅의 일대기 구조만으로 되어 있고, 여성영웅소설은 영웅의 일대기 구조와 남녀이합구조가 남장을 매개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영웅의 일대기 구조라는 것은 영웅소설이 아닌 작품까지 영웅소설로 보아야 할 만큼 그 외연이 과도하게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수학-응과급제-출정입궁-지위극대화’의 단락으로 이루어진 ‘입신양명구조’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여성영웅소설에는 ‘수학’ 이전에 남녀주인공의 ‘만남’이 설정되어 있고, ‘지위극대화’ 이후에 ‘다시 만남’이 설정되어 있다. 즉 여주인공은 남주인공과 혼사장애를 겪고 있는 ‘헤어짐’의 가간 동안 ‘수학-응과급제-출정입궁-지위극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와 같이 여성영웅소설은 ‘만남-헤어짐-다시 만남’의 과정을 그려내는 ‘남녀이합구조’와 ‘수학-응과급제-출정입궁-지위극대화’의 과정을 그려내는 ‘입신양명구조’의 절묘한 결합을 통해 다른 유형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서사모형을 갖추게 되었다. <쇼저영춘전>을 이에 견주면, 남녀이합구조는 온전한데 입신양명구조는 그렇지 못하므로 여성영웅소설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쇼저영춘전>을 여성영웅소설의 장르관습이 확립되기 이전에 출현한 모색기의 작품으로 볼 수는 없는가? 그리고 보면 <쇼저영춘전>은 최근 모색기의 여성영웅소설로 주목받고 있는 <설저전>과 유사한 면이 없지 않다. 두 작품에는 남장한 여주인공의 입신양

2) 안민정, 앞의 논문, 193면.

명이 그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계월전>·<정수정전>·<이대봉전> 등의 여성영웅소설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국난을 타개하는 여주인공의 무용담은 배제되어 있다. <쇼저영춘전>의 이소저는 부친의 유배로 집을 나온 뒤 남장한 채로 ‘수학-응과급제-부마간택-상표-혼인’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적을 보이는데, 이는 <설저전>의 설소저가 보이는 그것과 동일하다. 설소저도 권신 최훈의 모함으로 부친이 유배된 이후 남장한 채로 ‘수학-응과급제-부마간택-상표-혼인’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런데 두 작품 모두에서 세상을 속인 채 과거에 급제한 여주인공이 이렇다 할 활약 한 번 없이 서둘러 남장을 해제하는 상황은 왠지 어설피고 싱거운 느낌을 준다. 이 점을 감안하면 <쇼저영춘전>을 초기 여성영웅소설로 추정³⁾해볼 수도 있을 법하다.

하지만 <쇼저영춘전>과 <설저전>은 동질성 못지않게 이질성도 보이므로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설저전>은 10여종의 이본이 발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⁴⁾ 이에 비해 <쇼저영춘전>은 아직까지 유일본으로 존재할 뿐이어서 이본간의 차이를 가늠할 만한 단서를 찾기 어렵다. <쇼저영춘전>의 이소저와 김수재가 자발적으로 만나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된 반면, <설저전>의 설소저와 태자는 애정이 매개되지 않은 채 천자의 주혼으로 급작스럽게 혼인한 사이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쇼저영춘전>의 이소저에게는 남주인공과의 만남과 혼인이라는 과업이 부과되어 있었고,⁵⁾ <설저전>

3) 안민정, 앞의 논문, 199면.

4) 최희석, 「설저전」 이본 연구, 『우리문학연구』 13, 우리문학회, 2000.

5) <쇼저영춘전>의 ‘이소저의 상소’에 나오는 “김翰林을 묻져 아옵는 고로 만나볼가 하고 場中에 드러갓습더니”(52면), “한림의 얼굴을 보와스오니 이제는 너여 베히다 하여도 엇지 원통흔 마암이 잇스올잇가”(53면), “혼갓 언약만 식각하고 殿下을 속여 登科하여 벼슬가지 하오니”(53면)이라든가, 이에 대한 왕의 반응 가운데 “불상타 이翰林아 혼갓 언약을 변치 아니하고 굿되여 김翰林을 차차 벼필을 정하니 엇지 구구망상지되라 하리요”(54면) 등의 언급을 보면 이런 판단이 가능하다.

의 설소저에게는 권신 최훈에 대한 복수와 부친 신원이라는 과업이 부과되어 있었던 셈이다. 이런 차이로 인해 <쇼저영춘전>은 애정소설에 가까운 면모를 지니게 되었고, <설저전>은 효행록의 성향을 지닌 초기 여성영웅소설의 면모를 지니게 되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두 작품이 여성영웅소설의 서사모형을 공유하면서도 서로 다른 지향을 보이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일단 두 작품 모두를 여성영웅소설을 독자적으로 모색한 초기 작품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왜냐하면 <설저전>을 17세기 말에 창작된 초기 여성영웅소설로 보는 관점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⁶⁾ <쇼저영춘전>의 출현 시기를 추정할 만한 단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로 <쇼저영춘전>이 여성영웅소설의 외피를 쓰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애정소설의 성향을 농후하게 지니고 있는 작품임이 확인된 셈이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이 작품을 초기 여성영웅소설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므로, 이런 불안정한 상태의 작품이 출현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듯하다.

2.2. <쇼저영춘전>의 독창성 여부

앞서 <쇼저영춘전>이 다소 엉성하긴 하지만 여성영웅소설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은 갖추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그 어설픔고 엉성함이 모색기의 작품이어서가 아니라 기존 작품을 무리하게 축소하고 생략하

6) 최호석이 옥소 권섭의 <번설경전>이 1724년에 한역된 사실을 확인하고 원작인 <설저전>의 창작시기를 17세기 말로 추정한 이래, 정병설, 류준경, 정준식 등이 이러한 추정에 근거하여 여성영웅소설사의 구도를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최호석, 「<설제전> 연구」, 『고소설연구』 제6집, 한국고소설학회, 1998, 283-287면; 정병설, 「여성영웅소설의 전개와 <부장양문록>」, 『고전문학연구』 제19집, 한국고전문학회, 2000, 209-214면; 류준경, 「영웅소설의 장르관습과 여성영웅소설」, 『고소설연구』 제12집, 2001, 7-18면; 정준식, 「<김희경전>과 <육미당기>의 상관성」, 『한국문학논총』 제48집, 한국문학회, 2008, 51-55면.

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 결과는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모색기의 작품일지라도 몇 종의 이본은 남아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⁷⁾ 나아가 <쇼저영춘전>이 서사전개상 중요한 대목인데도 제대로 장면화하지 않고 심하게 축약한 예를 많이 보이는 것도⁸⁾ 이런 추정을 가능케 하는 단서가 된다. 만약 그렇다면 <쇼저영춘전>은 초기에 창작된 독자적인 작품이 아니라 이미 유통되고 있던 어떤 작품에서 파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알려진 여성영웅소설 가운데 작품의 구조 및 세부 모티프에서 <쇼저영춘전>과 가장 유사한 작품은 <김희경전>인 것으로 추정된다. 주지하듯 <김희경전>은 다양한 제명으로 수많은 이본들이 파생될 정도로 18세기 말경에 창작된 이래 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매우 활발하게 읽혀진 여성영웅소설이다.⁹⁾ <쇼저영춘전>과 <김희경전>의 유사성을 검토하기 위해 <쇼저영춘전>의 줄거리를 단락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성에 사는 이승상 부부가 후사가 없어 근심하다가 대성사에 가서 발원한 후에 한 딸을 얻는다.
2. 이소저가 9세 되던 해에 이승상의 부인이 병으로 죽으면서 이소저와 시비 영춘에게 ‘소저의 배필은 외가에 가다가 중도에서 만날 것

7) 초기 여성영웅소설 중 <설저전>은 11종, <이현경전>은 7종의 이본이 소개되었다. 두 작품 모두 이본 간에 두드러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최호석(2000), 앞의 논문 및 이병직, 「<이현경전>의 이본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53집, 한국문화회, 2009, 159-197면.

8) <쇼저영춘전>은 전체적으로 안정된 서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되도록 간략하고 축급하게 요약해서 서술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무엇인가를 생략·축소한 데서 비롯된 것 같은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대부분의 장면이 파괴됨은 물론 부분적으로 서사논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9) <김희경전>의 표제로는 ‘김희경전, 김상서전, 김씨효행록, 장씨효행록, 여중호걸, 여자충효록, 금환기봉, 쌍문충효록’ 등이 사용되었지만 이 가운데 ‘김희경전’이라는 제명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고 이 작품의 이본은 지금까지 약 30여 종이 소개되었다. 조희웅, 『고전소설이본목록』, 집문당, 1999, 106~108면.

이다'라는 유언을 남긴다.

3. 이소저가 어머니의 삼상(三喪)을 마치자 이승상이 소인의 참소로 북해로 귀양가면서 이소저에게 해남 석구촌(石丘村)의 외가에 가서 의탁할 것을 당부한다.
4. 이소저가 영춘과 함께 가산을 팔아 말을 사서 남북 차림으로 고향을 떠난다.
5. 이소저가 청룡택오관¹⁰⁾ 근처의 망월루에서 쉬다가 영춘의 중재로¹¹⁾ 해남의 김수재를 만나 인연을 맺고 후일을 기약한다.
6. 이소저와 영춘이 김수재와 이별한 후 해남의 외가를 찾아가니 외가는 이미 남경으로 이사하였다고 한다.
7. 이소저가 영춘과 함께 부친의 귀양지인 소주로 갔으나 부친은 이미 작고한 후였으므로 함께 유배된 여승상의 도움으로 부친의 시신을 선산에 안장하고 3년 시묘한다.
8. 김수재는 경성에 다녀온 후 이소저를 잊지 못해 상사병을 앓다가 부친(김승상)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해남 석구촌으로 이소저를 찾아간다.
9. 김수재가 해남에서 남경으로, 다시 남경에서 소주로 이소저를 찾아다닌다.
10. 이소저와 영춘이 이승상의 삼년상을 마치고 남북 후 해남 김승상의 집으로 갔다가 김승상으로부터 김수재가 자신을 찾아 집을 나갔음을 알고 '김수재는 보지 못하고 금과 돌만 보고 간다'는 내용의 벽서를 남기고 떠난다.
11. 이소저가 슬픈 마음에 벽해수 바위에 유서를 새기고 영춘과 함께 물에 투신하였는데 윤승지가 두 사람을 구한 후 집으로 데려가 자기의 딸과 혼인시키려 하니 이소저가 과거급제 후로 미룬다.
12. 김수재가 소주에 갔다가 이승상이 별세했음을 알고 돌아가다가 벽해수 가에서 이소저의 유서를 발견한 후 슬퍼하며 집으로 돌아간다. 얼마 후 김승상과 채시랑이 양가 자녀의 혼사를 의논한다.

10) <쇼저영춘전>, 13면을 보면 한자로는 “靑龍驛五關”으로 표기되어 있고 한글로는 “청룡택오관”으로 표기되어 있다.

11) 영춘이 김수재에게 이소저에 관한 정보를 제시할 때 ‘해남 외가에 가다가 인연을 만날 것’이라는 말과 ‘그 때필이 金石之中에서 날 것’이라는 말을 전해주자, 김수재가 이소저의 배필이 곧 자신임을 깨닫게 된다.

13. 나라에서 과거를 열었는데 김수재와 이소저가 함께 응시하여 장원으로 급제하자 상이 이소저를 부마로 간택한다.
14. 이소저가 할 수 없어 남장을 하고 살아온 그간의 사정을 글로 적어 상소하니 상이 주혼하여 이소저와 김수재를 혼인시킨다.
15. 이후 김수재는 이소저와 정혼한 윤승지의 딸은 물론 지난날 자신과 혼담이 오갔던 채시랑의 딸과 혼인하며, 영춘을 별실로 삼는다.
16. 김수재와 네 부인이 사이 좋게 지내면서 자손을 많이 낳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위에 제시된 <쇼저영춘전>의 줄거리는 <김희경전>의 특정 결연담을 방불케 한다. 주지하듯 <김희경전>에는 김희경-장설빙, 김희경-최소저, 김희경-이소저의 결연담이 중층적으로 얹혀있다. 이 가운데 김희경-최소저의 결연담은 <구운몽>의 ‘여장탄금대목’을 수용한 것이고, 김희경-이소저의 결연담은 <홍백화전>류 재자가인소설의 ‘남장결연대목’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비해 이 작품의 중심이 되는 김희경-장설빙의 결연담은 작가가 독창적으로 창안한 것이다.¹²⁾ <쇼저영춘전>은 <김희경전>에 나타나는 이들 세 결연담 가운데 김희경-장설빙의 결연담과 매우 유사하다. 이하 두 작품의 주요 대목을 대비적으로 살펴면서 구체적인 상관성을 확인해 보기로 한다.

<김희경전>에서 김희경과 장설빙이 처음 만난 곳은 ‘형초’의 한 객점이다. 희경은 응과를 위해 ‘경성’으로 가는 길이었고 설빙은 외숙이 있는 ‘탁주’로 향하던 중이었다. 잠시 피서를 위해 객점을 찾아든 두 남녀는 서로를 얼핏 보았음에도 강한 호감을 갖게 된다.¹³⁾ 설빙의 시비 영춘을 매개로 잠시 만난 두 사람은 신물을 교환하며 장래를 약속한 뒤 이별한다. <김희경전>의 이 장면은 <쇼저영춘전>에도 흡사하게 나타난다. 다만 두 사람이 만난 장소가 ‘형초’에서 ‘청용택오관’으로 바뀐 물론 ‘김

12) 정준식, 「<김희경전>의 창작방법과 창작시기」, 『한국민족문화』 제31집,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8, 191~195면.

13) 김동욱 A본 <김희경전>, 3면~5면 및 8면~9면.

희경'이 '김수재'로, '장설빙'이 '이소저'로 대체되었고, '유모'의 존재는 사라진 반면 '영춘'이란 시비는 그대로 등장한다. 그리고 장설빙과 이소저가 외숙 택을 찾아가는 원인도 '모친 죽음과 부친 유배에 따른 의지처의 상실'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별 후의 상황도 두 작품이 별반 다르지 않다. <김희경전>의 경우, 희경은 경성으로 가고 설빙은 외숙을 찾아 탁주로 간다. 그러나 탁주로 간 설빙은 외숙이 죽은 후 남은 가족이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것을 알게 된다. 그 후 설빙은 부친의 유배지인 북해로 갔지만, 부친 또한 수개월 전에 죽어 타향 땅에 묻히고 말았다. 이에 설빙은 부친의 시신을 청주의 선산에 안장한 다음 마지막 희망인 희경을 찾아 집을 나서게 된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희경 가족이 '하남'에서 '영천'으로 이사한 뒤였기 때문에 설빙은 끝내 희경을 찾지 못하고 유모·시비와 함께 벽해수에 투신하게 된다. 장설빙의 이와 같은 여정은 <쇼저영춘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김희경전>의 장설빙이 형초→탁주→북해→청주→하남→영천→벽해수로 옮겨 다닌 고난에 찬 삶의 여정이 <쇼저영춘전>에는 청용택오관→석구촌→남경→소주→경성→해남→벽해수로 대체되어 있을 뿐 두 인물이 겪은 일은 거의 동일하게 형상화되어 있다.

<김희경전>에는 '설빙의 희경 찾기'뿐 아니라 '희경의 설빙 찾기'도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 설빙이 탁주-북해-청주-하남을 전전하며 희경을 찾아다니는 동안 희경 또한 파파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가서 부모에게 설빙과 혼약한 사실을 말한 다음 곧바로 설빙을 찾아 나선다. 설빙의 이동 경로를 탐문하며 탁주-북해-청주를 전전하던 희경은 벽해수의 바위에 새겨진 설빙의 유서를 발견하고는 설빙이 죽은 줄로만 알고 실망하여 귀가한다. 그런데 강물에 투신했던 장설빙은 죽은 것이 아니라 전 참지정사 이영에게 구출되어 그의 집에서 기식하며 학업에 전념하고 있었다. 설빙은 이영에게 구출될 당시 남장상태를 유지하며 '장수정'으로 변성명했기 때문에, 이영은 그를 남자인 줄 알고 자신의 딸과 혼약하게 한

다.

<쇼저영춘전>에도 ‘이소저의 김수재 찾기’와 ‘김수재의 이소저 찾기’가 병렬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김수재는 이소저가 거쳐 간 곳을 차례로 답습하며 벽해수의 암벽에 새겨진 유서를 발견하고는 이소저가 죽은 줄로만 알고 실망하여 귀가한다. 하지만 강물에 투신했던 이소저는 윤승지에게 구출된 후 그의 집에서 기식하며 그의 딸과 혼약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이 두 작품은 남녀주인공이 헤어진 이후 서로가 서로를 찾아다니는 여정까지 흡사하게 그려낸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김희경전>에는 장설빙이 이영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김희경이 경성에 가서 외숙의 도움으로 최승상의 딸과 결혼하는 과정이 수십 면에 걸쳐 그려지고 있는데, <쇼저영춘전>에는 이 부분이 통째로 생략되어 있다. 이는 김수재와 이소저의 결연담만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자 한 작가의 전략이 아니었나 싶다.

<김희경전>에서 김희경과 장설빙의 재회는 과거급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두 사람은 동시에 응과하여 장원으로 뽑히는데, 장설빙은 김희경을 다시 만난 자리에서, 자신을 장설빙의 오라비인 ‘장수정’이라고 속여 말한다. 그리고 그 후로도 설빙이 환로(宦路)에 있는 동안 줄곧 자신의 정체를 숨겼기에 두 사람의 불완전한 만남은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김희경을 만난 후에도 계속 정체를 숨겨오던 장설빙은 국난을 타개하고 돌아온 뒤 부마간택을 계기로 어쩔 수 없이 여성 신분으로 복귀한다. 그리고 천자의 주혼으로 김희경과 혼인함으로써 ‘형초 언약’ 이후 오랫동안 지속되던 혼사장애를 극복하고 완전한 만남을 이룬다. <쇼저영춘전>에 형상화된 김수재와 이소저의 재회와 혼인도 <김희경전>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여기서도 김수재와 이소저가 동반 급제를 계기로 재회하지만, 김수재가 이소저의 남장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둘 사이의 불완전한 만남은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쇼저영춘전>에는 <김희경전>의 핵심구조라 할 수 있는 ‘만남-이별-고난-(남장)-수학-응

과급제-출정입공-지위극대화-부마간택-상표-(남장해제)-혼인'의 단락 중 여주인공의 영웅성 확보에 필수적인 '출정입공'과 '지위극대화' 단락이 보이지 않는다.

한편, <김희경전>과 <쇼저영춘전>은 작품의 구조면에서 뿐만 아니라 특정 모티프에서도 강한 유사성을 보이는데, 그 가운데 한 예만 확인해보자. <쇼저영춘전>에는 여주인공 이소저가 태어날 때 아이의 등에 “이 아히 비필은 金石김석 식이예서 날이다”¹⁴⁾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그런데 이는 <김희경전>의 여주인공 장설빙이 태어날 때 선녀가 정부인의 해산을 도우며 “빙당의 비필은 문창성니 푸른 복송화 가운데 금석사니의 써어져시니 천정을 어기지 마옵소서”¹⁵⁾라고 한 말과 흡사하다. 여주인공의 배필이 김씨와 석씨 사이에서 태어났음을 암시하는 이 말은 여성영웅소설 가운데 <김희경전>과 <쇼저영춘전>을 제외한 어느 작품에도 나오지 않으므로, 두 작품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논의로 <쇼저영춘전>과 <김희경전>의 유사성은 충분히 입증된 셈이다. 더구나 두 작품의 이와 같은 유사성이 다른 여성영웅소설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쇼저영춘전>과 <김희경전>은 직접적인 영향관계에 놓여있는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쇼저영춘전>은 독창적으로 창작된 작품이 아니라, 이미 전승되던 <김희경전>의 한 파생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¹⁶⁾ 역으로 <쇼저영춘전>이 <김희경전>의 형성에 영향을 끼쳤으리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14) <쇼저영춘전>, 3면.

15) 김동욱 B본 <김희경전>, 4면.

16) 이 문제는 3장에서 자세하게 검토할 것이다.

2.3. <쇼저영춘전>의 출현시기

안민정은 <쇼저영춘전>의 출현시기와 관련하여 “18~19세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¹⁷⁾고 하고 “18세기 이전으로 소급하기가 어려울 것”¹⁸⁾이라고 하더니만, 급기야 “<쇼저영춘전>의 창작시기가 18세기 전반으로 소급된다면 이 작품은 후에 나타나는 여성영웅소설의 초기작품이라 확정지을 수 있을 것”¹⁹⁾이라는 억측까지 보탰다. 그의 논의를 보면, 어떻게든 <쇼저영춘전>을 18세기에 창작된 작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성급함만 앞섰지, 그렇게 볼 수 있는 타당한 근거는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성급한 판단과 무리한 추정이 나오게 된 것은 <쇼저영춘전>과 기존 여성영웅소설과의 연관성은 아예 배제한 채 오로지 독창적인 작품으로만 몰아가려던 연구자의 편견 탓이다.²⁰⁾

<쇼저영춘전>은 1881년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19세기 후반에 해당되는 이 시기는 여성영웅소설이 통속화의 길로 접어든 때였다. 17세기 말에서 18세기 말까지 약 1세기 남짓한 기간 동안 완만하게 모색, 형성, 정착기를 거쳐 온 여성영웅소설은 19세기에 접어들어 남성영웅소설과 활발히 교섭하면서 자신의 영역을 확고히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²¹⁾ 초기 여성영웅소설과 본격 여성영웅소설의 분수령이라 할 수 있는 19세기를 전후한 시기에는 <하진양문록>·<부장양문록>·<홍계월전> 등이 출현하게 되는데, <김희경전>도 바로 이 시기에 창작된 작품이다.

<김희경전>은 18세기 말경에 창작된 이래 세 계열의 이본을 중심으로

17) 안민정, 앞의 논문, 188면

18) 안민정, 앞의 논문, 198면.

19) 안민정, 앞의 논문, 199면.

20) 본고는 <쇼저영춘전>을 <김희경전>의 파생작으로 보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쇼저영춘전>의 출현시기’란 <김희경전>의 이본 혹은 개작본 하나가 새로 파생된 시기를 뜻하지, 결코 새로운 작품이 처음 창작된 시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21) 필자는 최근 이런 관점에 입각하여 ‘초기 여성영웅소설의 형성기반과 정착과정’에 대한 별도의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

로 활발히 전승되어 왔다. 정명기본 계열은 원본의 모습을 가장 잘 유지하면서 생략과 변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초기 이본이고, 국중본 계열은 정명기본 계열에서 파생된 이래 특정 대목에서 부분적인 생략과 변개의 과정을 거친 중기 이본이며, 성대본 계열은 앞의 두 계열에 비해 후반부의 내용을 통째로 생략함으로써 장편의 단편화를 시도한 후기 이본이다.²²⁾ 처음 <김희경전>이 창작된 이래 상당 기간 동안은 장편의 분량을 지닌 정명기본 계열과 국중본 계열만 전승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²³⁾ 그러다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후반부의 1/3이 탈락된 성대본 계열이 새롭게 출현하고 이를 모본으로 삼은 활자본이 거듭 출간되자, 마침내 성대본 계열이 두 계열을 제치고 <김희경전>의 전승에서 주류를 차지하게 되었다.²⁴⁾ 이것으로 볼 때 세 계열의 이본 가운데 <김희경전>의 변모를 실질적으로 견인한 것은 성대본 계열이라 할 수 있다. 장편의 분량을 지니고 있으면서 영웅담보다 결연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정명기본 및 국중본 계열은 19세기 후반 여성영웅소설의 독자들에게 어정쩡한 작품으로 비춰졌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19세기의 여성영웅소설은 대부분 유형화된 구성 원리를 바탕으로 남녀주인공의 영웅담과 결연담을 균형 있게 배합하여 단편의 분량으로 그려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대본 계열은 이런 추세를 적극 반영하여 후반부의 결연담을 과감히 생략함으로써 당시 통용되던 여성영웅소설의 통속적 구성 원리와 합

22) <김희경전>은 김희경과 장설빙의 만남·이별·고난을 다룬 전반부, 김희경과 장설빙의 임신양명과 혼인을 다룬 중반부, 김희경과 이소저의 결연을 다룬 후반부로 나뉜다. 이 가운데 김희경과 이소저의 결연담을 다룬 후반부는 19세기 여성영웅소설의 장르관습에서 벗어난 군더더기로 인식되어 탈락된 것으로 파악된다. 정준식, 「<김희경전>의 이본계열과 텍스트 확정」, 『어문연구』 제53집, 어문연구학회, 2007, 270~273면.

23) 성대본 계열의 대표본인 성대본 <김상서전>이 1873년에 필사된 것으로 볼 때 19세기 중반까지는 장편인 정명기본 계열과 국중본계열만 전승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24) 정준식(2007), 앞의 논문, 272~273면.

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쇼저영춘전>은 앞서 검토된 <김희경전>의 세 이본 계열 가운데 성대본 계열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이 작품도 성대본 계열의 <김희경전>처럼, 이소저와 김수재의 만남·이별·고난을 다룬 전반부와 두 사람의 입신양명과 혼인을 다룬 중반부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쇼저영춘전>을 성대본 계열의 파생작으로 볼 경우, 이 작품의 출현 시기를 18세기로 올려 잡으려는 관점은 타당성을 얻기 어렵다. 성대본 계열에서 출현시기가 가장 앞서는 성대본 <김상서전>이 1873년에 필사된 정황으로 볼 때, <쇼저영춘전>의 출현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19세기 중반을 상회하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의 제명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짚어둘 것이 있다. <쇼저영춘전>은 작품이 다루고 있는 내용과 제명이 서로 맞지 않는다. 작품에는 이소저와 김수재의 혼사장애 및 그 극복과정이 핵심서사로 되어 있고, 그 과정에 남녀주인공의 입신 과정이 간략히 그려지고 있다. 그런데 <쇼저영춘전>의 작가는 이소저만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그의 고난에 찬 인생역정에 따라 서사를 전개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그러다보니 <김희경전>에서 남주인공이 하던 역할과 비중이 이 작품에는 대폭 축소되어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쇼저영춘전” 혹은 “영춘전”이란 제명은 작품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다. 아마도 시비 영춘의 가볍지 않은 역할에 주목하여 “쇼저”와 “영춘”을 합친 “쇼저영춘전”을 제명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지만, 원작인 <김희경전>의 영춘에 비해 <쇼저영춘전>의 영춘은 그리 큰 비중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²⁵⁾ 그러니 시비만 내세워 “영춘전”을 제명으로 삼는 것은 더더욱 작품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현재로서는 필사자가 남긴 두 제명 가

25) 장편 계열의 <김희경전>에는 주변 인물이면서도 작품 내에서의 비중이 가볍지 않은 두 시비가 등장한다. 하나는 장설빙의 시비 ‘영춘’이고 다른 하나는 이소저의 시비 ‘설앵’이다. 두 시비는 각기 그들의 주인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모든 난관을 타개해가는 인물이다.

운데 “쇼저영춘전”을 택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²⁶⁾

3. <쇼저영춘전>에 대한 향후 논의 방향

앞서 <쇼저영춘전>을 19세기 중반 이후 성대본 계열의 <김희경전>에서 파생된 작품으로 추정하였다. 성대본 계열에 속하는 <김희경전>의 이본에는 서울대본 <김희경전>, 국중본<김희경전>, 성대본 <김상서전>, 한중연본 <굴원전>, 활자본 <여자충효록>과 <여중호걸> 등이 있다. 그런데 <쇼저영춘전>은 성대본 계열의 여타 이본들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므로 이를 단순히 <김희경전>의 이본으로 간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기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쇼저영춘전>의 두드러진 성향을 몇 가지 간추리면서 이 작품에 대한 향후 논의 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첫째, <쇼저영춘전>은 여성영웅소설에서 애정소설로의 전환을 시도한 작품이다. 이 작품의 원작인 <김희경전>에는 원래 입신양명구조를 근간으로 삼은 영웅담보다 남녀이합구조를 근간으로 삼은 결연담의 비중이 훨씬 크게 나타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김희경전>이 17세기 이래 재자가인소설에서 관습적으로 활용되던 ‘한 남성 대 두 여성의 결연담’을 크게 변용하여 이를 서사의 중심축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즉, 19세기 중반을 전후한 시기에 성대본 계열이 출현되기 전까지 <김희경전>의 모든 이본에는 ‘한 남성 대 두 여성의 결연담’이 공통적으로 수용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성대본 계열 이외의 <김희경전>은 모두 김희경과 장설빙의 만남·이별·고난을 다룬 전반

26) 안민정은 이 작품을 소개하는 논문에서는 “쇼저영춘전”이란 제명을 썼다가 작품을 영인하여 자료집으로 간행할 때는 “영춘전”이란 제명을 내세우면서도 해제에서는 “<영춘전>에 대하여”라고 했다. 작품에 표기된 철자를 그대로 존중하여 “쇼저영춘전”을 제명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부, 김희경과 장설빙의 입신양명과 혼인을 다룬 중반부, 김희경과 이소저의 결연을 다룬 후반부로 구성되면서 장편의 면모를 지니게 되었다.

그런데 19세기 중반 이후 단편의 성대본 계열이 출현하게 되자, 이제는 같은 계열 내에서 다양한 지향을 보이는 이본들이 여럿 파생되었다. 성대본 계열 가운데 성대본 <김상서전>은 단순히 후반부를 통째로 생략한 이본인데, 이는 활자본 <여중호걸>과 <김희경전>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²⁷⁾ 그리고 서울대본 <김희경전>은 성대본 <김상서전>의 방계로, 작품의 세부 내용 및 구성이 성대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와 같이 성대본 <김상서전>과 그 자장에 놓여있는 몇몇 이본은 정명기본 계열과 국중본 계열이 지니고 있던 후반부를 생략함으로써 김희경과 장설빙의 결연담과 영웅담을 두드러지게 부각하는 효과를 가져왔다.²⁸⁾ 이러한 변모는 궁극적으로 영웅담과 결연담의 적절한 균형을 통해 통속성을 강화시켜 나간 19세기 여성영웅소설의 지향과도 무관하지 않다.²⁹⁾

이에 비해, 활자본 <여자충효록>, 한중연본 <굴원전>, <쇼저영춘전>은 성대본 <김상서전>을 적극적으로 개작한 것이기에, 성대본 계열의 다른 이본들과는 인물과 배경 및 구성면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여자충효록>은 배경을 국내로 삼고 등장인물의 성명도 일부 다르게 설정하였을 뿐 아니라, 구성면에서도 남녀주인공의 1:1 결연담과 영웅담

27) 활자본으로 간행된 <김희경전>(1917)과 <여중호걸>(1917)은 표제만 다르고 내용은 동일하다. 그리고 이에 앞서 1914년에 <여자충효록>이 간행되기도 하였으니 활자본 <김희경전>의 이본은 2종인 셈이다.

28) 물론 김희경과 장설빙의 결연담 외에 김희경이 다른 여성들과 혼인하는 삽화들이 그대로 혹은 축약된 채 남아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한 남성 대 여러 여성의 결연담’이 지켜지고 있는 셈이다.

29) 필자는 최근 여성영웅소설 가운데 17세기 말에서 18세기 말에 이르는 약 1세기 남짓한 기간에 창작된 작품을 ‘초기 여성영웅소설’로,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1910년대) 사이에 창작된 작품을 ‘본격 여성영웅소설’로 규정하고, 초기 여성영웅소설의 형성기반과 정착과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작업이 원활히 수행되고 나면 19세기 여성영웅소설이 전대에 확립된 장르관습을 기반으로 통속성을 강화해간 과정을 탐구해 볼 계획이다.

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쪽으로 변모되었다. 그리고 <굴원전>은 배경이 중국이지만 <김희경전>의 이본들이 ‘대원(大元)’으로 설정된 것과 달리 ‘초국(楚國)’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굴원, 김자란 등의 실존인물을 등장 시켜 당대의 역사적 사건을 서사화하고 있기 때문에 작품의 구성도 <김희경전>의 그것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남녀의 결연담을 영웅담보다 비중 있게 다룬 점에서는 장편 계열의 <김희경전>과 궤를 같이한다.³⁰⁾ 요컨대 두 작품은 성대본 <김상서전>을 개작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원전의 서사모형을 고수하려는 구심력에 이끌려 여성영웅소설로서의 최소 요건은 근근이 유지하고 있다.

<쇼저영춘전>도 <여자충효록>과 <굴원전>처럼 <김희경전>을 개작한 작품인데, 여성영웅소설을 탈피하고자 하는 원심력에 이끌려 유형성 혹은 장르 판별이 모호한 작품이 되고 말았다. <쇼저영춘전>의 개작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김수재와 이소저의 결연담을 핵심 서사로 삼으면서 부차적인 결연담은 편린만 남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웅담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쇼저영춘전>에서는 ‘만남-헤어짐-다시만남’으로 요약되는 남녀이합구조가 작품의 근간을 이루는 반면, ‘수학-응과급제-출정입공-지위극대화’로 요약되는 입신양명구조는 거의 파괴되었다. 이에 따라 <쇼저영춘전>은 여성영웅소설에서 애정소설로 전환된 작품으로서의 면모를 보인다. 그런데 <쇼저영춘전>의 작가는 영웅담을 제거하면서 입신양명구조의 일부 단락인 ‘수학-응과급제’를 남겨 두었다. 아마도 작가는 남녀주인공이 잠시 만났다가 헤어진 이후, 이들의 다시 만남을 이끌어낼 적절한 장치를 고안하지 못해 원전에 있는 만남의 방식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쇼저영춘전>은 여성영웅소설과 애정소설의 경계에 놓인, 모호한 작품이 되고 말았다.

둘째, <쇼저영춘전>은 여성중심의 서사를 시도한 작품이다. 이 작품

30) <굴원전>은 아직까지 학계에서 한 번도 다룬 적이 없기 때문에 차후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의 작가는 결연의 주체인 ‘이소저’와 그의 시비 ‘영춘’을 합성하여 “쇼저영춘전”이란 제명을 만들어냈다. 그런 다음 ‘김수재’를 주인공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그의 출생과 성장에 관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이소저’의 출생과 성장으로 작품의 서두를 삼았다. 이를 바탕으로 작가는 이소저의 고난에 찬 삶의 여정을 따라 서사를 전개하면서 사이사이에 김수재의 동향을 삽입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김수재는 부차적인 인물로 밀려나게 되고, 작가의 관심은 이소저 및 그를 따르는 영춘에게 쏠려 있다. 그 결과 <쇼저영춘전>의 김수재는 <김희경전>의 김희경에 비해, 영웅적인 능력이 거세되고 결연 과정에서의 역할도 축소된, 나약하고 왜소하기 이를 데 없는 인물로 전략하였다.

그런데 <쇼저영춘전>의 작가가 여성중심의 서사를 구축하기 위해 남성 인물의 역할을 축소했다고 해서 여성 인물의 역할이 그만큼 확대된 것은 아니다. <쇼저영춘전>은 <김희경전>에서 김희경과 장설빙의 결연담만 선별적으로 수용하여 이를 작품구조의 근간으로 삼았다. 그런데 원전에 비해 서사의 편폭이 크게 축소되고 중요한 장면들이 파괴됨으로써 이소저와 영춘 등 여성 인물의 행위나 대화도 그만큼 줄어들거나 생략되는 현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³¹⁾ 원래 이 작품은 김수재와 이소저의 운명적인 사랑을 그린 소설인데, 이를 여성중심의 서사로 드러내기 위해 애정 당사자인 남성의 역할을 무리하게 축소하고 제명까지 작품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게 설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요컨대 <쇼저영춘전>은 여성중심의 서사를 구축하려던 작가의 의도와 실제 작품의 내용, 그리고 작품의 제명이 서로 상충됨으로써 ‘개선(改善)’이 아닌 ‘개악(改惡)’의 결과를 가져왔다.

이상과 같이 <쇼저영춘전>은 <김희경전>을 애독하던 독자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여성영웅소설에서 애정소설로의 전환을 시도한 작품으로

31) 원전인 성대본 <김상서전>이 224면의 분량인데 <쇼저영춘전>은 62면의 분량이니, 대략 1/4의 분량으로 줄어든 셈이다.

이해된다. 그런데 개작의 목적과 방향이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원전 내용의 무리한 생략과 축소에 따른 장면의 파괴, 인과관계의 상실, 졸렬한 문체 등의 여러 문제들이 중첩된 탓에 애정소설로도 여성영웅소설로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쇼저영춘전>이 별다른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쇼저영춘전>은 여성영웅소설을 대표할 수 있는 <김희경전>의 자장을 확인하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김희경전>은 18세기 말에 창작된 이래 1910년대에 이르기까지 자체 내에서 세 계열의 이본으로 분화되며 활발히 전승되었다.³²⁾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은 <여자충효록>·<굴원전>·<쇼저영춘전>으로 개작되기도 하고, <육미당기>의 창작에 자양분을 제공하기도 하였다.³³⁾ 이러한 사실은 <김희경전>이 여성영웅소설사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결코 만만치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쇼저영춘전>을 <김희경전>의 수용사라는 거시적인 틀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동안 간과해왔던, 여성영웅소설사에서 갖게 될 <김희경전>의 위상이 제대로 포착될 수 있을 것이다.

4. 마무리

<쇼저영춘전>의 발굴 사실이 알려진 지도 벌써 4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아직 이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고의 논의로 <쇼저영춘전>은 18세기 말에 창작된 <김희경전>의 한 파생작이며, 그것이 파생된 시기는 대략 19세기 후반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

32) 정준식, 「<김희경전>의 이본 계열과 텍스트 확정」, 『어문연구』 제53집, 어문연구학회, 2007, 244~260면.

33) 정준식, 「<김희경전>과 <육미당기>의 상관성」, 『한국문학논총』 제48집, 한국문학회, 2008, 45~51면.

성영웅소설의 대표작인 <김희경전>은 18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약 1세기 남짓한 기간 동안 향유되면서 세 계열 30여 종의 이본과 <여자충효록>·<굴원전>·<쇼저영춘전> 등의 파생작을 거느리게 되었고, <육미당기>의 창작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김희경전>의 자장이 만만치 않으므로 향후 여성영웅소설사의 구도를 온전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김희경전>의 수용사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김희경전>의 수용사에서 볼 때, <쇼저영춘전>은 19세기 후반 성대본 계열의 <김희경전>에서 파생된바, 앞으로 이런 관점에서의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류준경, 「영웅소설의 장르관습과 여성영웅소설」, 『고소설연구』 제12집, 2001, 7~18면.
- 안민정, 「<새로 발굴한 <소저영춘전>에 대하여」, 『溫知論叢』 第18輯, 온지학회, 2008, 182~204면.
- 안민정 교수, 『영춘전』,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2009, 1~89면.
- 이병직, 「<이현경전>의 이본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53집, 한국문학회, 2009, 159~197면.
- 정병설, 「여성영웅소설의 전개와 <부장양문록>」, 『고전문학연구』 제19집, 한국고전문학회, 2000, 209-214면
- 정준식, 「<김희경전>의 이본계열과 텍스트 확정」, 『어문연구』 제53집, 어문연구학회, 2007, 270~273면.
- 정준식, 「<김희경전>과 <육미당기>의 상관성」, 『한국문학논총』 제48집, 한국문학회, 2008, 51-55면.
- 정준식, 「<김희경전>의 창작방법과 창작시기」, 『한국민족문화』 제31집,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8, 191~195면.
- 조희웅, 『고전소설이본목록』, 집문당, 1999, 106~108면.
- 최호석, 「'설저전' 이본 연구」, 『우리문학연구』 13, 우리문학회, 2000.
- 최호석, 「<설제전> 연구」, 『고소설연구』 제6집, 한국고소설학회, 1998, 283-287면.

<Abstract>

The suspicions on the Sojeo-Youngchoonjeon
and the Future Direction of Discussion

Jeong, Jun-Sik

This study reviews several suspicions on the <Sojeo-Youngchoonjeon>, and discusses new direction of discussion based on the result.

The <Sojeo-Youngchoonjeon> is a work that reveals appearance of female heroic novel and at the same time reveals characteristics of romantic fiction, so called ‘a work in conversion of genre’.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Sojeo-Youngchoonjeon> and the <Kimheegyeongjeon> are being observed through the core structure and particular motif of the works. However, since such similarities cannot be observed from other female heroic novels, we can say these two works have direct influential relationship.

The <Kimheegyeongjeon> and various copies of different editions were read by many people from the late 18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on the other hand, only one single edition of the <Sojeo-Youngchoonjeon> was handed down. From this, we can infer that the <Sojeo-Youngchoonjeon> is a work derived from the <Kimheegyeongjeon>.

The <Sojeo-Youngchoonjeon> could be a precious source to see the influence of the <Kimheegyeongjeon> which can represent for female heroic nove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e the

<Sojeo-Youngchoonjeon> as a construction process of the
<Kimheegyeongjeon> from the macro view so that the status of the
<Kimheegyeongjeon> in literature history which has been neglected
so far can be raised.

Key Words : the Sojeo-Youngchoonjeon, Female Heroic Novels,
Construction Process of the Kimheegyeongjeon, Edition,
Tales of Conjugal Relations, Heroic Tale

■ 논문접수 : 2011년 6월 30일

■ 심사완료 : 2011년 8월 5일

■ 게재확정 : 2011년 8월 10일